

려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. 학생들은 기능대학의 높은 취업률과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입학한 것입니다.

지난해 입학생들의 경쟁률은 무려 15:1이었습니다.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왔으며 다른 대학에 합격하고도 기능대학을 택한 경우도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기혼자도 7명이나 되는 것입니다. 이 사람들에게 대한 서울시의 공신력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서글픈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.

서울시에서는 기능대학을 폐지하고 대신 기술전문학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나 그 비용이나 기능대학으로서의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친애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, 이 나라에는 박사·석사학위를 받은 최고급 인력도 중요하지만 중급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. 부디 교육은 백년대계하라는 말이 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바입니다.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서울市立技能大學閉校(職業專門學校)의 還元
反對請願 檢討報告

검토의견

- 서울시립기능대학은 기술이론과 실기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기술자·기능장 등 고급기능 인력을 양성하고,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·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기능전환하여 기능대학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조례를 제정('97.12.5), 시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'98년 3월에 개교 운영하고 있으나
- 서울시에서는 '98년 12월 29일 2단계 구조조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시립기능대학은 직업훈련전문학교로 전환키로 하며, 그 시행시기는 2000년 3월로 하고 '99년도 신입생은 기능대학과정(다기능기술자)을 제외한 직업훈련과정만을 모집중에 있음.
- 시립기능대학폐교(직업전문학교로의 환원) 반대에 대한 청원인들의 청원요지와 소개위원의 소개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아울러 금번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행

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는 시립기능대학의 직업훈련전문학교로의 전환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볼 때 본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신중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請願要旨書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